유엔 헌장 80 주년:
용기를 되살리고, 목적을 되찾다

1945 년 6 월 26 일, 세계의 국가들은 평화 속에서가 아니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유엔 헌장에 서명했습니다. 저항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80 년이 지난 지금, 그 희망은 가장 심각한 시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의 약속, 그 취약성, 그리고 효과성을 목격한 전직 국제 공무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기로 맹세한 원칙들은 체계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재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전에 묻혀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배제와 절망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제법을 무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의 지배를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것—조각조각, 원칙별로—입니다.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를 넘어섭니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약, 백신을 공급하는 기관, 학살을 막는 평화유지군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념일은 의식이 아닌 반성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도덕적 명확성을 촉구합니다. 헌장의 가치—평화, 인권, 법치, 인간 존엄성에 대한 믿음—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실보다 거짓, 부패보다 청렴, 침묵보다 연대라는 새로운 약속이 필요합니다.

이 국제 질서가 붕괴된다면—그리고 긴급한 조치가 없으면 붕괴될 것입니다—재건에는 세대가 걸릴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법 강화, 분쟁 예방,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 모든 곳에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는 우리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사과가 아니라. 이는 우리 세대의 시험입니다.

전 세계 전직 유엔 고위 관리들과 국제 공무원들이 서명했습니다.

Disclaimer: Every effort has been made by signatories to this Call to translate the original text into various languages and thus bring it closer to a larger number of people around the world. Apologies in advance for any unintentional mistakes. In case of doubt, please compare to the original Call in English, which is available at https://www.foggs.org/prg/call-un-charter-at-80